

종합·국제

北 막판 돌출 요구 “경수로 달라”

김계관 귀국 직전 밝혀 “2·13 합의 성실 이행 할것”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21일 “영변 핵시설을 해제하려면 경수로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6차 수석대표회담을 끝내고 돌아가기 위해 베이징 서우두 공항 출국장을 찾은 김 부상은 항공기 탑승 직전 핵무기의 신고대상 포함여부를 묻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현존 핵계획, 다시말해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단하고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며 그러자면 경수로가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상은 “우리가 할 것은 명백한데 다른 쪽은 준비가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김 부상은 “핵무기 해결의 기본은 중유(重油)가 아니고 우리는 중유 먹는 기생충이 아니다”며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핵무기의 신고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문

문에 김 부상은 “생각을 좀 해보면 알게 되겠다”며 “신뢰 구축이 돼 나가면서 볼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핵무기 신고에 대해 당신들 생각은 어떠한가”고 되물기도 했다. 김 부상은 이보다 먼저 국내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차 수석대표 회담 결과와 관련 “회담이 잘 됐고 논의도 잘 됐고 결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 결과에 만족하며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사흘간의 수석대표 회담 일정을 소화한 김 부상은 “이번 회담에서 핵시설 불능화 시한 설정을 못한 것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상은 “(불능화)기한을 설정하려면 상응

하는 각측의 의무사항을 명백히 하고 행동 순서를 잘 잡아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실무회담과 2단계 6자회담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초기단계 이행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회담은 진지하고 건설적이고 실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 부상은 “일본은 압력만 가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 일본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사사에 일본측 수석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그와) 만났다”면서 “6차 틀에서 접촉했고 6자회담의 진전과 조-일관계 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우리의 민족적 자존권을 침해하는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한발 더 나가면 재난이 올 것이지 주의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이정=연합뉴스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첫 합동연설회가 실시된 22일 제주 한라체육관 연설회장에서 한 박근혜 지지자(가운데)가 이명박측 지지자들의 당원 확인을 요구하며 항의하다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몸싸움·욕설...李-朴 지지자 충돌

■ 한나라 제주서 첫 합동연설회

한나라당 대선 경선주자들은 22일 오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공식 경선레이스의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한 ‘총력 득표전’에 나섰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 의원, 홍준표 의원의 연설을 통해 지역 공약을 제시하며 ‘제주 표심’을 자극했고 이들의 지지자들도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한치의 물러섬 없는 싸움을 벌였다. 특히 ‘빅2’인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응원경쟁을 펼쳤으며 주춤하는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몸싸움과 욕설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지자 3천여명 자리다툼 치열

◇李-朴 지지자 ‘충돌’=이날 행사는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의 세대별로 시작했다. 오후 12시 30분경 행사장 입장이 시작되자마자 양 주자의 지지자들은 앞다퉈 체육관 안으로 뛰어들어 자리경쟁을 펼쳤고, 결국 연단 맞은편 ‘평당자리’는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플래카드와 피켓으로 뒤덮였다. 특히 이들은 연단이 가장 잘 보이는 관중석 맨 앞 간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에 가까운 정도의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몸싸움을 하는가 하면 상대측의 플래카드를 짓밟는 등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MB연대, 명박사랑 등이 주축이 된 이 전 시장 지지

자들은 자리를 잡은 뒤 기호 1번이 적힌 회색 티셔츠를 덧입은 뒤 ‘경제먼저, 오빠먼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명박”을 연호했다. 박사모를 비롯한 박 전 대표 지지자들도 질세라 시종 박 전 대표의 사진과 ‘줄푸세’라는 구호가 담긴 피켓과 푸른색 깃발을 흔들며 이에 맞섰다. 3천여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의 응원경쟁으로 장내가 지나치게 소란해져 행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 지도부와 경선관리위원회의 장내방송을 통해 거듭 자체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TV토론회 발언 놓고 장외의 ‘연장전’

◇‘빅2’ 진행 TV토론회 발언 두고 ‘연장전’=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진영은 전날밤 열린 첫 TV토론회의 발언을 놓고 장외에서 연장전을 펼쳤다. 박 전 대표측은 토론회에서 박 전 대표가 “지난 1991년 이라크전 위기 당시 현대건설이 직원들을 현지에 남으라고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전 시장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 ‘이라크 현대건설 근로자 22명 잔류경위 조사’라는 제목의 당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시장은 전날 박 전 대표가 5·16 군사 쿠데타나 유신체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조선개국에 대해 태조와 정몽주 선생의 평가가 다르듯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한 것에 언급, “위험한 역사 인식”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연합뉴스

대선 예비후보 73명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 예비후보가 70명을 넘어섰다. 2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와 후 지금까지 7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는 3개월간 매일 한 명씩 등록한 셈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예비후보 등록 마감시한인 11월 24일까지 150여 명 선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여 명에 달하

3개월간 매일 한명씩 등록 150여명까지 늘어날수도

는 범여권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등록을 하지 않아 범여권 국민경선 추진이 구체화되는 내달 이후에는 이들의 무대기 예비후보 등록이 예상된다. 예비후보 중 한나라당 당직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고진화 의원이고 열린우리당은 허경영 후보 등 7명, 통합민주당은 이인제 의원, 김영환 전 의원 등 7명, 민주노동당은 권영길·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3명이다. 이밖에 시민당과 시스템미래당, 신미래당 후보가 1명씩이고 나머지 51명이 무소속이다. /연합뉴스

“北 비핵화해야 북-미관계 등 정상화”

美 “6자회담 매우 생산적...모멘텀 다시 얻어”

미국은 20일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면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모든게 가능할 것이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변화하기 힘들 것”이라며 북한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마감시한인 11월 24일까지 150여 명 선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여 명에 달하

대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는 등 이번 회담은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케이스는 또 “우리는 북핵 폐기와 관련해 중요한 모멘텀을 다시 얻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실무 그룹들이 내달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 폐기를 위한 2단계 이행 조치는 금년 말까지 완료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다

만 금년 12월이나 내년 2월이나 중요하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이행을 완료하는게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에서 시한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핵폐기를 하는 과정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그룹 회담으로 남긴 것”이라며 “따라서 실무그룹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핵폐기를 위한 공식 일정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정=연합뉴스

인도 첫 여성 대통령 탄생

집권연정 후보 프라티바 파틸 당선돼

인도에서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배출됐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집권연정 후보이자 여성인 프라티바 파틸(73) 라자스탄 주지사가 제13대 인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선거위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29개 주(州)와 6개 직할시에서 투표함을 수거한 뒤 이날 개표한 결과 집권연정인 통일진보연합(UPA) 후보인 파틸이 인도국민당(BJP) 주도의 아련연

합인 전국민주연합(NDA)이 내세운 B.S. 세가와트 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인도는 총리가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국가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군 최고통수권자로 상징적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여당이 후보를 지명, 야당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가 각각 다른 후보를 지명해 첫 경선이 이뤄졌



며, 치열한 후보 검증공방이 벌어졌다. /뉴델리=연합뉴스

‘비당원 홍사덕’ 논란 재연 조짐

한나라당 대선 경선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 캠프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의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2005년 ‘10·26 제보선’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탈당했던 홍 위원장이 여전히 ‘비당원’인 점에 대해 당과 경선 라이벌인 이명박 전 서울

시장 측이 문제 제기를 계속할 전망이다. 박 전 대표 측은 “강공”으로 밀어붙일 태세이기 때문이다. 홍 위원장은 “당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당규에 저촉된다는 이 전 시장 측 문제 제기와 21일 이전에 복당 절차를 밟으라는 당 경선관리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시장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수강생 모집...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수강생 모집...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수강생 모집...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현도로교통사고감정사

현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전문 감정사 교육

현도로교통사고감정사

현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전문 감정사 교육

현도로교통사고감정사

현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전문 감정사 교육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로템갤러리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로템갤러리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로템갤러리